

# 최대 승부처 된 與 호남 경선

### 이재명 '본선 직행' 이낙연 '역전 발판', 호남 결과에 달려 후보·캠프 모두 호남으로...추석연휴 민심 쟁탈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의 '안방' 호남이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오는 25-26일 광주·전남과 전북 순회경선 결과에 따라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가 승기를 완전히 굳힐 수도 있고, 추격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추격의 발판을 놓을 수도 있어 대선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온 호남 민심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2일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이 지사가 누적 득표율 51.41%로 1위, 이 전 대표가 31.08%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가 네 차례의 순회경선과 49만여 명 규모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두 과반을 달성, 대세론에 탄력을 붙인 상태다. 다만 경선 첫 주 총칭에서 54%대의 지지를 받은 것과 달리 1차 선거인단 득표율은 51.09%로 소폭 하락했다.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되는 것이 목적인 이 지사의 입장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결과다.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전 대표는 첫 주 (28%)보다 오른 31.45%의 득표율로 반등에 성공했다. 첫째 주 패배 이후 내놓은 '의원직 사퇴' 승부수가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대역전극의 불씨를 살렸다는 것이 이 전 대표 측의 판단이지만 여전히 20% 포인트의 큰 표차이로 반전을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 후보 모두 다음 경선지인 호남에서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광주와 전남·북을 합친 호남 권리당원 수는 20만명으로 서울 (14만명), 경기 (16만명)보다 많다. 또 상징성 큰 당의 지지기반이라는 점에서 호남 경선 결과

에 따라 흐름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결보기에 호남 민심은 아직 특정 후보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지 않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6-7일 광주·전남 성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40.7%, 이 전 대표는 3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

0-11일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조사한 결과에서는 광주·전남북 지지율이 이 지사 41.2%, 이 전 대표 29.8%로 나타났다. 모두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선 결과보다는 격차가 좁다. 호남 출신인 이 전 대표가 최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지지층 내 의견 교란이 활발해지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의 사퇴 카드가 호남 민심에 변화를 주겠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며 2주간

바닥 민심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호남은 본선 경쟁력을 보고 '이길만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이 지사측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날 직접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호남 공약을 발표하고, 주중과 연휴 중 연달아 호남을 방문한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호남에서 이미 초집전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이를 향후 2차·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역전극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캠프 전체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려 호남 '다결기'에 나섰다. /연합뉴스



인사하는 이재명·이낙연 **오**는 25-26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과 전북 순회경선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호남 경선 앞두고 중도하차한 丁...요동치는 민주 경선

### 일단 단일화 선긋기 속 판세 영향 주목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경선 레이스에서 도중하차, 경선 구도에 변수로 부상했다.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을 약 2주일 앞두고 세력 면에서는 범진노·진문을 아우르고 지역적으로는 전북에 뿌리를 둔 정 전 총리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향후 경선 판이 어떻게 요동칠지 주목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사퇴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

다"며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타 후보 지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서 즉답을 피하며 일단 단일화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전날까지의 누계 집계로 정 전 총리가 얻은 표는 4.27%에 그친다. 그러나 그동안의 5연승 과반 행진을 토대로 호남에서 '본선 직행'의 쉼기를 박으려는 선두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나 의원직 사퇴 승부수를 발판으로 호남에

서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추격자 이낙연 전 대표 양쪽 다 '고지 입성'을 위해선 적통과 호남 기반을 품은 정 전 총리의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정 전 총리의 하차에 따른 세력간 합종연횡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 전 총리측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 지사, 이 전 대표 등 각 후보 진영의 구애경쟁도 뜨겁게 달아올라 전망이다. '어후명'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독주 체제 굳히기에 들어간 이 지사측은 이 전 대표와의 추후 연대 가능성에 경계감을 내비치면서도 정 전 총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

고 '좋은 신호'로 풀이하며 내심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정 전 총리 캠프 세력이 자발적으로 이 지사측에 합류, 대세론 강화 및 친문 끌어안기 가속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 전 총리는 그동안 이 전 대표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며 완주 의사를 다져왔다. 반명 연대를 고리로 초반부터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띄워온 이 전 대표 캠프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 전 총리의 사퇴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연합뉴스

# 텃밭 딛고 결선간다...이낙연 '호남대전 올인'

### 필수인력 제외 캠프 전 직원 호남 상주 '표심갈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주 뒤 펼쳐질 호남 경선에 모든 전력을 투입하며 추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당의 전통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세론을 제압하고 결선으로 넘어가 건곤일척의 단판 승부를 겨루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 순회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과반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간 결선을 치러야 한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 초지역순회 경선 시작과 동시에 호남 표심 다지기에 전력을 쏟아왔다. 최근에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캠프 직원 전원을 호남에 상주시키다시피 하며 지역표심 갈이에 주력하고 있다. 호남에 분포한 대의원·권리당원의 표는 총 20만표로, 이번 경선의 승부를 좌우할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현재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누적 표차는 약 11만 표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2년 호남이 위대했던 이유는 될 것 같은 인연제 후보가 아니라 되어야 할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가치투표, 미래투표가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캠프에서는 호남에서 이 지사와 나란히 40% 초·중반대 각축전을 벌인다면 내달 3일 '2차 슈퍼위크' (2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 아예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2차 선거인단에 등록된 유권자는 총 49만6천명으로 호남표의 2.5배에 달하는 만큼 호남의 기세를 '2차 슈퍼위크'에서 증폭시키겠다는 시나리오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남을 거쳐 2차 슈퍼위크에서 선두로 올라선다면 결선투표는 기정사실"이라며 "일단 초집전 양상인 호남경선이 관건"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 이재명, 굳히기 총력 속 '어후명' 경계령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승부처인 호남 순회경선을 앞두고 '대세론' 굳히기 총력전에 나선다. 초반 지역 순회경선 4곳과 '1차 슈퍼위크'까지 모두 이 지사가 과반 득표로 싸늘이하며 연승가도를 달려왔지만,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실시하려면 추격자들과의 더욱 격차를 벌여야만 한다는 판단이다.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13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주간브리핑에서 "조기 후보 확정은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핵심 전략"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 측은 전날 발표된 1차 국민·일반선거인단 개표 결과를 포함해 51.41%의 지지를 획득한 만큼, 이번 없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 측은 이날 "남은 2·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흐름처럼 이 지사가 압도적인 우

위를 보일 것"이라며 "막바지 권리당원 표가 몰린 경기 지역 순회경선 결과도 이 지사의 대세론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2위인 이낙연 전 대표가 그의 '흠그라운드'인 호남에서의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득표율 30%를 돌파하면서 이재명 캠프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혹여 결선에서 이 전 대표와 맞붙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지사의 '대세'가 뒤집히지는 않더라도 이후 당 내부를 '워팀'으로 재정비하고 본선에 임할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 지사가 전날 밤 "어차피 이재명이 후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순간 승리는 날아간다. 마지막까지 긴장감 늦추지 말고 함께해달라"며 "어후명" 경계령을 내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어제 1차 선거인단에서 과반 득표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완전한 굳히기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내부 결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 '텃밭이 과반'에 대해 냉정하게 자평했다. /연합뉴스

### '父 부동산 의혹' 윤희숙 사직안 가결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5일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만이다. 여야는 윤 의원의 사직안 제출 당시 상대에게 '공'을 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했으나 결국 가결로 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직안 건이 상정되면 찬성 표결하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